

올 41개 대학, 새 총장 맞이한다 미래 교육의 '새로운 길' 제시



2022년 전국 41개 사립대학이 차기 총장을 선출하며 또 한 번의 도약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총장 없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대학은 7곳으로, 이들 대학을 모두 합치면 최대 48개 대학이 올해 새 총장을 맞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 등으로 대학이 존재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의 변화를 이끌고 새 시대를 이끌 새 총장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항공대·명지대, 새해 첫날 총장 임기 시작

3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제공한 '전국 4년제 사립대학 총장 임기현황'에 따르면, 올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대학은 총 41 곳으로,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전 7개 대학에서 새 총장이 새 리더십을 펼친다. 새해를 맞이한 1월에는 ▲유지상 광운대 총장 ▲안민 고신대 총장 ▲박형주 아주대 총장 ▲홍성희 을지대 총장 ▲장순홍 한동대 총장 등 5명 총장의 임기가 종료돼 새 총장을 맞이할 예정이다.

1~2월께 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대학 대부분은 지난해 말 차기 총장 선출 작업에 돌입했으며, 몇몇 대학은 새 총장 선출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국내 대학 중 올해 가장 처음 새 총장을 맞이한 대학은 한국항공대와 명지대로, 이들 대학은 1월 1일 새해 새 총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한국항공대는 지난해 12월 23일 허희영 경영학부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임명했다. 허 총장은 춘천고와 한국항공대 항공관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 객원교수, 한국항공경영학회 회장, 한국관광학회 부회장, 항공대 경영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명지대는 현 유병진 총장이 연임해 앞으로 4년간 대학을 이끈다. 유병진 총장은 취임사에서 "명지대는 중장기발전계획인 MJU 2025+에 기초해 교육·행정·대학경영분야에

(2022년 새 총장이 임기를 시작하는 대학)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대학	총장	임기시작	임기종료	대학	총장	임기시작	임기종료		
1 한국항공대학교	이강웅	2018-01-01	2021-12-31	22 남서울대학교	윤승용	2020-08-21	2022-08-20		
2 명지대학교	유병진	2019-01-01	2021-12-31	23 동덕여자대학교	김명애	2018-08-23	2022-08-22		
3 광운대학교	유지상	2018-01-10	2022-01-09	24 김천대학교	윤옥현	2018-08-28	2022-08-27		
4 고신대학교	안민	2018-01-25	2022-01-24	25 경일대학교	정현태	2018-09-01	2022-08-31		
5 아주대학교	박형주	2018-02-01	2022-01-31	26 광주가톨릭대학교	김혁태	2018-09-01	2022-08-31		
6 을지대학교	홍성희	2018-02-01	2022-01-31	27 목원대학교	권학대	2018-09-01	2022-08-31		
7 한동대학교	장순홍	2018-02-01	2022-01-31	28 세한대학교	이승훈	2018-09-01	2022-08-31		
8 서울장신대학교	안주훈	2018-03-01	2022-02-28	29 인하대학교	조명우	2018-09-01	2022-08-31		
9 용인대학교	박선경	2018-03-01	2022-02-28	30 한려대학교	류지협	2018-10-31	2022-09-30		
10 위덕대학교	장익	2018-03-01	2022-02-28	31 호서대학교	김대현	2020-10-22	2022-10-21		
11 한국의국외대학교	김인철	2018-03-01	2022-02-28	3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김선배	2018-10-23	2022-10-22		
12 백석대학교	장종현	2020-03-01	2022-02-28	33 한라대학교	김응권	2018-11-01	2022-10-31		
13 창신대학교	이원근	2020-03-01	2022-02-28	34 칼빈대학교	김근수	2018-11-06	2022-11-05		
14 수원대학교	박철수	2021-03-01	2022-02-28	35 신라대학교	김충석	2020-11-25	2022-11-24		
15 대구대학교	김상호	2018-06-01	2022-05-31	36 대전신학대학교	김영권	2018-12-01	2022-11-30		
16 수원가톨릭대학교	곽진상	2018-06-25	2022-06-24	37 영산신학대학교	백인혁	2018-12-01	2022-11-30		
17 서울한영대학교	한영훈	2018-07-01	2022-06-30	38 인천가톨릭대학교	송태일	2018-12-01	2022-11-30		
18 성신여자대학교	양보경	2018-07-01	2022-06-30	39 중앙승가대학교	임일규 (원종)	2018-12-21	2022-12-20		
19 동신대학교	최일	2018-07-15	2022-07-14	40 원광대학교	박맹수	2018-12-23	2022-12-22		
20 성공회대학교	김기석	2018-08-01	2022-07-31	41 청운대학교	이우종	2018-12-23	2022-12-22		
21 건양대학교	이철성	2021-01-27	2022-08-08						

서 혁신적인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자 교육 혁신전략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교육특성화사업을 강화하겠다"며 "구성원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명지의 재도약을 이루어낼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직무대행 체제 대학 포함 48곳 7개 대학, 3월 전 새 총장 선출 1년 중 3월, 총장 최다 교체 시기

◆광운대·아주대, 새 총장 선출 완료...3월 신학기 총장 최다 교체

오는 9일자로 유지상 총장이 임기를 마치는 광운대도 유 총장에 이어 대학 미래를 이끌 새로운 수장으로 김종현 전자융합공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임기는 1월 10일부터 4년간이다. 1995년 광운대 교수로 부임한 김 신임 총장은 기획처장과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등을 거쳤고, 조달청 기술평가위원과 국립방재연구원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단 자문위원, 국방기술평가위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표준화 전문가, 하나은행 IT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특히 학교법인 광운학원은 유지상 총장의 임기를 반년 앞둔 지난해 6월부터 11대 총장 선출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학내 TF를 꾸려 오픈 포럼을 개최하는 등 구성원 목소리를 담은 노력을 해왔다.

일찌감치 총장의 연임을 확정하거나 선출을 마무리한 대학들은 안정적인 학교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안민 총장이 오는 24일 임기를 마치는 고신대는 아직 새 총장을 뽑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재단사무국에서 열린 총장선거에서 후보 3명 중 누구도 재직이사 11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8표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신대 학교법인 이사회는 같은달 15일 총장초빙 재공고와 함께 30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쳤으며, 오는 14일 이사회에서 다시 총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박형주 총장에 이어 제17대 아주대 총장에는 최기주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임기는 2022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4년. 최기주 신임 총장은 지난 1992년부터 서울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책임연구원을 지냈으며

1994년부터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재직해 왔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는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중도사퇴 포함 '총장 공백' 7곳 항공·명지대, 올 첫 총장 맞이 덕성여대, 동문 첫 총장 선임

새 총장 임기 시작은 1년 중 1학기 시작인 3월이 가장 많다. ▲안주훈 서울장신대 총장 ▲박선경 용인대 총장 ▲장익 위덕대 총장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장종현 백석대 총장 ▲이원근 창신대 총장 ▲박철수 수원대 총장 등이 2월 28일자로 임기를 마치고 3월 1일부터 새 총장이 대학 수장이 된다.

한국외대는 이미 총장 선출을 마쳤다. 제12대 총장에 박정운 ELLT학과(영어학과) 교수가 선임돼 신학기 임기를 시작한다. 박 신임 총장은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교에서 언어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부터 한국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육대학원 교학부장, 언어연구소

장, 대외협력처장, 영어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이밖에 ▲윤승용 남서울대 총장(임기 8월 20일까지)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8월 22일) ▲조명우 인하대 총장(8월 31일) ▲김대현 호서대 총장(10월 21일) ▲박맹수 원광대 총장(12월 22일) ▲신동렬 성공관대 총장(12월 31일) 등이 올해 임기를 마친다.

◆총장 공석 대학 7곳...덕성여대는 신임 총장 선출

7개 대학은 현재 총장 자리를 비운 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전 총장 임기가 종료됐거나 사퇴한 상태지만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지 못한 대학은 ▲한세대 ▲신경대 ▲평택대 ▲경기대 ▲서울기독대 ▲세명대 ▲협성대 등이다.

총장 공석 대학 중 서울기독대와 신경대는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이름을 올리며 이종고를 치르고 있다. 한세대와 평택대, 협성대도 지난해 9월 교육부 대기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최종 미선정된 대학이다.

협성대는 박명래 전 총장이 직위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지난해 10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총장 공석 상태로 지난해를 시작한 덕성여대는 지난해 연말 새 총장을 선출하며 올해는 새 총장이 대학 발전을 이끈다. 지난달 21일·22일 열린 제12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투표 결과 김건희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득표율 57.98%로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됐다. 덕성여대 건학 이래 동문이 총장으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신임총장은 오는 20일부터 2026년 1월 19일까지 4년동안 덕성여대 발전을 꾀할 전망이다.

김건희 신임 총장은 "동문으로서 첫 총장 선임에 대한 영광도 있지만 향후 덕성여대의 발전을 모색하고 많은 대학들의 재정위기 등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희생의 각오를 남달리 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